나이스 미추
OCTOBER
2019. Vol.420



10



미추홀 한나루로에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화장품

우리는 미추홀 사람입니다

[표지이야기 2면]











10

CONTENTS

OCTOBER 2019. Vol.420

02 표지이야기
미추홀 청년창업 5호점 김은실 대표

03 연중기획
할머니 많은 동네에 들어선 젊은 창작자들 문화공간

04 든든복지
"복지로 골목골목 함께 웃는" 한마당

05 알찬교육
최초의 열차 타고 시간여행 떠난다

06 골목사이
도로명주소 벽화골목 구경 오세요

07 사람과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08 多같이 함께
젊음의 광장 페스티벌부터
국가제사 재현까지… 축제 '풍성'

10 점프미추홀
환경 지키고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11 튼튼건강
"건강한 식생활 함께해요"

12 알림마당
미추홀구 알짜정보 게시판

14 의정소식
의원칼럼

15 열린칼럼
김용운의 미추愛세이 / 시선의 온도

16 소통공간
문화달력·우체통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나이스미추〉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발행일** 2019년 9월 25일
편집 미디어홍보실 홍보팀 **디자인** 032디자인㈜
주소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TEL 032-880-4093 **FAX** 032-880-4868
홈페이지 http://michu.incheon.kr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서 〈나이스미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색조화장품 '오셰르'

미추홀 청년창업 5호점 김은실 대표

그리 넓지 않은 오셰르 사무실. 내부 공간이 온통 블랙이다. 여느 곳에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컬러다.
색조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김은실 대표(36)의 옷도 같은 컬러였다. 자신이 기획하고 만든 색조화장품을 최대로 표현하려는 프로 정신이 느껴졌다.



오셰르는 히브리어로 행복(happiness)을 의미한다. 본인을 포함해 구매자들이 화장품으로 인해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블랙에 대비돼 색조화장품 컬러가 도드라져 보인다. 노랑, 빨강, 파랑, 형광색 등 컬러는 과감하고 단순하다. 군데군데 빠져 있다고 하지만 진열대를 채운 화장품에서 김 대표의 내공이 느껴졌다.

미추홀구 지원으로 2018년 3월 '청년창업 5호점'으로 창업했지만, 그녀의 기업가 정신은 명확하다. 그만큼 오셰르는 제품 철학을 가졌다.

"친환경 성분으로 자연스럽고 강하게 발색을 낸다."

여타 매니큐어의 경우, 대부분 화학성분이다. 특히 아세톤 성분이 많기에 임산부나 어린이가 사용하면 안 된다. 예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화장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중학생만 돼도 틴트(입술에 바르는 립 틴트로 화장품의 일종) 사용이 일상화 됐다. 그만큼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졌다.

다른 색조화장품과 달리 오셰르는 식물성 재료를 주성분으로 한다. 워터 베이스이기에 냄새가 없고 어린 연령대가 사용해도 해가 없다. 그만큼 친환경적이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건 인증'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자신과 가족,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이 작은 병 속에 담겨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상품 브랜드 미크릿(Mecret)을 론칭했다. '나의 시크릿 레시피'라는 뜻으로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레시피를 소비자들과 공유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미추홀구에 있지만, 그녀의 판매망은 이미 전국적이다. 제품군은 매니큐어, 틴트, 파운데이션, 블로셔, 입욕제 등 5개 카테고리 120 여개 제품군을 자랑한다.

그 때문일까, 올해 초부터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인터넷 온라인뿐만 아니라 광명 롯데아울렛 등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 중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탄탄한 제품력을 선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색조화장품을 15년 이상 연구한 전문 인력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컬러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 지식을 가졌고, 한국인의 컬러 성향과 트렌드에 맞춘 컬러배합 기술까지 갖췄다. 그렇기에 오셰르는 미래로 갈수록 경쟁력을 갖는 구조다.

미추홀구 청년창업 제 5호점 오셰르. 대표와 직원들은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꿈'을 꾼다. 청년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그날이다.

오셰르
미추홀구 한나루로 485
050-4978-6306
osher2018@naver.com

2019 희망골목

할머니 많은 동네에 들어선 젊은 창작자들 문화공간

‘수봉정류장’,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

제물포 남부역 건너편,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낯선 공간이 들어섰다. 유리문 너머 안쪽으로 커피잔과 인형, 책, 엽서, 뜨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이 아기자기 늘어서 있다. 푹신한 소파도 눈에 띈다. 오가는 주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웃거리지만, 상점인지 카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심혜진 명예기자



‘수봉정류장’ 내부 모습

주민들이 편히 쉬며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터







이곳의 이름은 ‘수봉정류장’(미추홀구 수봉로68번길 51). 8월15일 문을 열었다. 배다리에서 무인 책방 ‘달이네’와 ‘요일가게’를 운영해 온 문화기획자 청산별곡(본명 권은숙)이 수봉공원 일대에서 문화 활동을 펼치고자 세 팀의 예술창작자와 의기투합했다.

예술창작자들은 100㎡(약 30평)의 공간을 네 귀퉁이로 나눠 사용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낸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고, 손수 만든 뜨개작품 등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한다.

청산별곡은 그동안 모아 온 빈티지 생활소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랫동안 무인 책방을 운영한 노하우로, 식물 관련 책을 진열·판매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창고로 쓰이던 곳은 지난해 세입자가 나간 뒤 한동안 임자를 찾지 못해 방치됐다. 건물 2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청산별곡이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월세였다. 혼자선 버거운 비용이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월세를 나눠 낼 이들을 물색했다. 평소 그와 뜻이 맞던 창작자 여럿이 나서주었고, 지난봄부터 공간을 청소하고 페인트칠하며 인조 잔디를 바닥에 깔아 각자 자신이 사용할 공간을 꾸몄다. 개성이 묻어나면서도 조화를 해치지 않는 ‘수봉정류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수봉정류장’은 근처 수봉공원에서 이름을 따왔다. 문화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류장’은 누구든 들렀다 갈 수 있고, 멈추거나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의미다. 이름처럼, 문을 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곳은 동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동네에 할머니들이 많아요. 오가며 쉬시라고 가게 앞에 의자도 몇 개 내놓았죠. 늘 문이 닫혀 있던 곳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쁘게 꾸며 놓으니까 보기 좋으신가 봐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도 ‘여기 뭐 하는 곳이냐, 구경해도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있는 크고 무거운 화분을 키우기 버겁다며 기증하기도 했고, 집 자물쇠가 고장나 당황한 할머니는 무작정 이곳으로 달려오기도 했다. 때론 오래된 찻잔 세트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 동네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청산별곡은 싫지 않은 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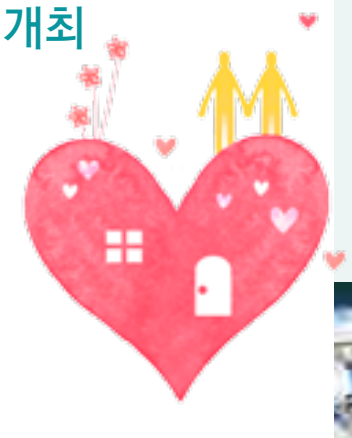
“할머니들이 우리 공간에 관심을 가질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재밌어요. 이분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시범으로 ‘꽈배기 데이’를 열었다. 제과제빵을 배우는 이가 연습 삼아 찹쌀 꽈배기를 만들어 주민과 나눈 것이다. 당일 오전부터 할머니들은 “언제 나와? 언제 나와?” 하며 가게 앞을 서성였다. 결과는 대성공. 그날 만든 꽈배기는 모두 팔렸고 함께 만들며 다 같이 나누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됐다.

사실 그에겐 ‘큰 그림’이 있다. 이 빌라 전체를 ‘문화빌리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하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2층은 게스트하우스, 옥상은 생태텃밭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주민들이 편히 쉬며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복지로 골목골목 함께 웃는” 한마당

‘제2회 미추홀구 사회복지박람회’ 10월12일 개최



미추홀구는 구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10월12일 구청 운동장에서 사회보장시설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 ‘복지로 골목골목 함께 웃는 미추홀구‘라는 부제로 제2회 미추홀구 사회복지박람회가 펼쳐진다.

박종남 명예기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을 알리기 위한 행사는 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춘석)가 주관한다.

민·관 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확장,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행사다.

식전공연과 개회식, 무대공연, 체험부스와 부대행사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커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식전 행사와 무대공연 대부분은 복지시설에서 실력을 쌓은 주민들이 채운다.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이 무대를 열면 플루트 연주와 한국무용, 난타공연, 마술, 색소폰 앙상블 등 공연이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과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손수건 자수 놓기, 미아방지용 구슬 팔찌 만들기, 냅킨아트로 손거울 만들기, 전통놀이기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건강부스에서는 혈관, 체지방, 치매 검사와 상담을 진행, 참가자들에게는 파스를 나누어 줄 계획이다. 가족사진 촬영과 포토 엽서 만들기 등 이벤트도 열린다.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색체험과 공연을 통해 ‘사회복지’에 친숙하게 한발 다가갈 이번 행사는 우천 시에도 구청 대회의실과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고 힘을 보태서 여는 장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정보도 제공받고 체험도 하면 좋겠다”며 구민을 두 팔 벌려 초대한다.



일자리와 함께 희망도 잡으세요

‘미추홀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10월11일 개최



장애인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돕는 ‘미추홀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0월11일(금) 오후 2시부터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미추홀구와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25개 업체가 참여한다.

30여 개 부스를 운영, 현장에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간접 참여업체는 이력서 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또 채용컨설팅과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와 카페 트럭, 정신건강검진과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복지 실현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자, 특수학교 및 학급 졸업예정자,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 등 4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현숙 명예기자

나이스미추 그림판

글·그림 **유사랑**



최초의 열차 타고 시간여행 떠난다

청소년 대상 '경인선 탐방교육'
11월9일까지 토요일마다 진행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인천에서 시작됐다.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는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경인선 탐방교육-한국 최초의 열차 경인선, 시간을 달리다'가 9월부터 11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심혜진 명예기자

동인천역과 부평역, 부평공원을 둘러본 후 인천개항박물관과 자유공원, 자연생태박물관, 문학산 일대, 아인스월드 등을 찾아가 평화, 생태, 역사 등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이다.

1899년에 열린 경인선 개통식을 전문 배우들이 상황극으로 재현하며 시작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19세기 말 당시처럼 표를 내고 검표하는 과정을 거쳐 특별전용 열차인 '경인선탐방열차'에 오른다.



부평역에서 하차한 뒤 전용버스로 부평공원으로 이동, 경인선 철도부설권을 놓고 한-미-일이 대립하던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투어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사전 신청에 따라 '인천의 역사가 숨 쉬는 곳-문학산 일대', '외세로부터 지켜낸 평화-인천개항박물관, 인천 자유공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자연생태박물관', '인천에서 세계를 여행하자-아인스월드'를 방문해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한다. 투어가 끝나면 팝업북을 제작, 소회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참여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에 다니는 전철에 이런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 재밌게 놀면서 내가 사는 지역과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주 코스별로 선착순 35명이 정원이며, 초등학생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는다. 규정상 어른은 참여 및 동행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쏭내관의 재미있는 사교육현장(www.ssong500.com)' 사이트에서 '경인선 탐방교육프로그램' 포스터를 찾아 누르면 된다.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치스토리컨설팅 고객센터(070-7791-5720)로 문의하면 된다.

작지만 아름다운 6개의 점 '점자'

송암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의 한글 세상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귀한 수단이다. 최초의 한글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만든 고(故)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린다.

송암의 뜻을 기리는 '송암점자도서관'(한나루로357번길 105-19)이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 녹음도서, 확대도서, 전자도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점자도서는 촉각을 이용해 읽어야 하므로 책의 파손율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또한 점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독서가 불가능하고 점역 기간도 길며 제작비도 높다. 그러나 시청각 중복장애인에게는 점자가 유일한 독서 수단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녹음도서는 낭독자가 소리를 녹음해 저장한 것이다. 점자도서와 더불어 가장 이용률이 높은 매체다. 녹음도서는 시각적으로 독서가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불편해 책을 들거나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이들, 혹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확대도서는 문자나 도표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인을 위한 도서다.

점자도서관에는 이밖에도 대면낭독, 정보검색, 자료전환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낭독자원봉사자와 함께 책을 읽고 독서연계 활동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수시로 진행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 대출 서비스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인천지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두성 선생의 삶과 업적을 알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송암점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심혜진 명예기자


송암점자도서관 외관


송암점자도서관 내부



송암점자도서관 내부

점자의 원리 **문의** 송암점자도서관 876-3504

점자는 작은 점 여섯 개(가로 2점, 세로 3줄)로 자음과 모음을 표현한다. 'ㄱ'은 오른쪽 위의 점, 'ㄴ'은 맨 위의 점 두 개, 'ㄷ'은 맨 위 오른쪽 점과 두 번째 줄 왼쪽 점, 이런 식이다. 한글과 달리 옆으로 풀어쓰는 점자의 특성 때문에 같은 'ㄱ'이라도 초성과 종성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 점자책은 부피가 크고, 독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명주소 벽화골목 구경 오세요

100여 곳 새 단장
청년 예술인 고용·골목 미관개선 '1석2조'

주소체계가 기존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실시한 지 5년이 흘렀다. 제법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사례가 도심 곳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미추홀구는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벽화 골목을 조성했다.

김호선 명예기자

어두운 골목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벽화를 그리는 사업으로 벽화에 도로명주소를 명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방식이다. 여기에 벽화 제작을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맡겨 청년 고용정책 사업을 더했다. 일명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이다.

벽화 작업을 할 장소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년예술인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 100여 곳이 도로명 벽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

용현2동 능해길77번길 일대 벽면 39곳, 용현3동 독배로 382번길 일원 벽면 10개소가 꽃그림과 구름이 피어난 산책로로 바뀌었다.

또 문학동 학익교 교가하부 벽면, 도화2·3동 신창연립 7개동 벽면, 도화1동 주안로 7번길이 친근한 만화 캐릭터와 화사한 그림으로 채색됐다.

구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골목 미관개선과 홍보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동네 주민이면 한 번쯤 산책하며 귀엽고 아름다운 벽화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 이후 100여 년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과정을 거치며 1번지 옆에 120번지가 위치하는 등 불연속성으로 더 이상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세계적인 주소체계 추세에 맞춘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좌측 건물에는 홀수 번호, 우측 건물에는 짝수 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하는 체계다.



BEFORE & AFTER











interview

“열심히 노력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유소년축구단, 대회마다 실력 발휘 ‘꿈나무’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을 꿈꾸며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하는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유소년축구단’이 있다. 2014년 4월 창단한 축구단은 미추홀구청과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스포츠클럽이다. 꿈을 가진 소년들은 오늘도 미추홀구청 축구장과 풋살구장에서 힘든 훈련을 소화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유소년축구단은 감독과 3인의 코치가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심재우 감독은 선수경력 13년의 베테랑으로 U-18 청소년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했고 강동FC 코치, 중국 정저우FC유소년팀 코치를 역임했다. 또 김남용, 오서령, 왕선홍 코치도 다년간 선수 생활 경험이 있다.

유소년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선수반, 취미반, 주말반, 유아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미추홀구 관내 초등생이면 참가할 수 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상시 모집하며 선수반으로 편성되면 KFA공식 선수 등록과 각종 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비는 월 기준 선수반 15만 원, 취미반 12만8천 원으로 현재 100여 명이 훈련 중이다. 훈련시간은 선수반 주 5회(1회당 2시간), 취미반·평일반 주 2회로 감독과 코치가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중 힘들어하거나 잘 따라가지 못할 땐 시간을 주고 다른 아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합니다. 감독은 옆에서 올바른 지침을 주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 따라오기를 기다리면 대부분은 잘 적응합니다.” 심 감독은 아이들이 즐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한다고 전했다.

전술훈련, 체력훈련, 정신훈련과 더불어 주 1~2회 영상 이론교육으로 각자의 장단점을 찾아내는 실전교육을 진행한다. 또 연습경기와 친선경기로 실전 기술과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지원(숭의초 6학년) 군은 “축구에 흥미가 있고 재질도 있다고 생각해서 축구단원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이재성 선수 같은 프로선수 되는 게 꿈”이라며 웃는다.

김진성(능어대초, 6학년) 군은 “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에서 승리하면 성취감이 느껴진다”며 “축구를 보다 잘 하기 위해 축구단에 들어왔고 감독과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축구단은 제13회 금강배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U-12부분 준우승과 제5회 인천시교육감배 초등부클럽축구대회에서 U10(초등4학년)·U12(초등6학년) 공동 준우승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9월28일(월) 제3회 A1프리미어 리그(경기안산)와 11월9일(토)~10일(일) 스포츠클럽 왕중왕전(강원도 동해)에 출전한다. 또 11월1일(금)~3일(일)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1~4회 연속 우승)로 출전한다.

심 감독은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부담 없이 마음껏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꿈나무들이 멋진 축구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안성구 명예기자







사단법인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457 문의 888-7330



젊음의 광장 페스티벌부터 국가제사 재현까지… 축제 '풍성'



10월을 채우는 미추홀구 '4색 축제'

가을 한가운데서 미추홀구의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상권부활과 젊음의 거리 탄생을 알리는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과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준비한 테마 패션쇼가 첫 포문을 연다. 또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재현하는 원도사제와 주민 마당예술동아리가 펼치는 학산마당예술 '놀래'가 올해도 무대를 꾸민다. 제각각 특색을 지닌 4색의 페스티벌에 참여, 이 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최향숙·문하연 명예기자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

오는 10월25일(금)부터 27일(일) 제물포역 북광장에서 제물포역 역세권의 상권부활과 젊음의 거리 재탄생을 알리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제물포역 북광장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학생 및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물포 북광장 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명소 조성을 위해 준비됐다. 젊음의 광장이 조성된다면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축제는 10월25일(금)부터 북광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비어광장,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린다.

비어광장은 주말 저녁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맥주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광장에 파라솔 및 테이블을 설치되어 누구나 광장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북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관내 중·고·대학생 동아리공연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제물포역 북광장 일대가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 시 10월25일(금)~27일(일)
장 소 제물포역 북광장 공영주차장 앞
문 의 문화예술과 ☎880-4766







주안시민지하도상가 패션브랜드 대전

오는 10월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주안시민지하도상가에서는 '패션브랜드 대전'을 개최, 테마 패션쇼를 시작으로 경연대회, 공연, 거리극, 먹거리, 프리마켓, 시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축제는 시장, 상인, 다문화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등 민·관이 만들고 진행하는 정기 문화축제로 패션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알리고 상가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패션브랜드 대전은 점포마다 패션코디 및 브랜드 표현 전략을













젊음… 패션… 전통… 예술
도심의 가을 물들이는
4가지 흥겨운 마당

전문가를 통해 교육하고 지난 5월부터 예선을 진행, 본선에 오른 15개 점포의 패션을 선보인다.
패션쇼 모델들도 전문 모델이 아닌 점포 고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무대에 선다. 장소는 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놀거리, 먹거리도 다양하게 꾸며진다.

일 시 10월11일(금) ~ 12일(토)
장 소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 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070-8822-9074

제4회 인천원도사제·제9회 낙섬축제

'인천원도사제·낙섬축제'는 10월5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미추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국가제사 원도사제(猿島祠祭)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마을 축제와 연계,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의 섬들을 품은 원도사제 고유의 의미를 되살리고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행사를 재현하는 동시에 용현5동 마을축제인 낙섬축제와 연계, 지역 주민과 학생, 문화예술 단체, 자원 활동가, 상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장으로 꾸민다.
전통마당으로 원도사제 재현행사 '하늘의 소리를 듣다'를 펼친다. 용현동 두레공원에서 행사장까지 300여 명이 원도사 터의 신물(태양, 비, 바다, 땅)을 모셔가는 행진 퍼레이드를 연다. 청황패놀이 줄 당기기는 관람객 누구나 참가할 수 잇는 화합과 만복을 기원하는 장이다.

구분	주요 행사내용
전통 마당	- 원도사제 재현행사, 소망의 퍼레이드, 청황패놀이 줄 당기기 - 전통연희 버스킹, 전통문화체험, 미추홀 역사 홍보·전시 등
열린 마당	- 낙섬축제(축하공연, 노래자랑, 그림 그리기 대회, 시장 먹거리) - 두레정원 체험, 주민 플리마켓 및 Meet. U. 마켓, 푸드트럭 등
체험 마당	- 문화체험, 건강체험, 토탈공예, 전시·판매 부스존 - 의상체험, 행사장 상징물 및 인생네컷 포토존

일 시 10월5일(토) 오전 10시30분~
장 소 용정 근린공원 일원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 2번 3번 게이트 사이)
문 의 문화예술과 ☎880-4667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728-6221



제6회 학산마당예술 '놀래'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마당예술 '놀래'는 마당극에서 타 장르까지 시선을 넓히는 마당예술로 확장, '미/추/홀/수/다'라는 주제로 10월19일(토) 옛 시민회관 쉼터와 문화예술창작지대 '틈'에서 개최된다.
마당극 경연마당에 참여하는 마당예술동아리들은 동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미추홀가족센터, 아파트공동체 등 기관이나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구성된 동아리들도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동네 살아지다'라는 주민 전시도 선보인다. 주안3동 재개발 지역이 사라지기 전의 모습을 사진과 주민공동판화로 전시하고, 주인선의 옛 풍광을 오브제로 재현하거나 인형극으로 선보인다. 학산지속발전협의회가 진행한 주인선을 주제로 한 아이들 그림도 전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 생활동아리 축하공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활동,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연계한 체험 및 판매부스도 운영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학산문화원 홈페이지(www.haksanculture.or.kr)에서 볼 수 있다.

일 시 10월19일(토) 오후 2시~
장 소 옛 시민회관 쉼터와 문화예술창작지대 '틈'
문 의 미추홀학산문화원 ☎866-3994

환경 지키고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탄소포인트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하면 환급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며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훨씬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을 낮춰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강현숙 명예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를 절약하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 세대주, 단독주택 및 아파트, 상가, 학교, 공공시설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세대 당 1명만 참여가 가능,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탄소포인트 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 후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에 제출해도 된다.



매년 6월과 12월 인센티브를 지급,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준으로 5%~10% 미만이면 전기는 5천 포인트, 상수도 750포인트, 도시가스 3천 포인트, 10% 이상일 경우 전기는 1만 포인트, 상수도 1천500포인트, 도시가스 6천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 당 2원 이하로 최대 7만 원이 지급된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이 불가능할 땐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탄소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문의 환경보전과 ☎ 880-4321

현재 사용량 ⟷ 비교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전기	수도	가스
5~10% 미만 절감	10,000P	1,500P	6,000P
10% 이상 절감	20,000P	3,000P	12,000P

버리면 환경오염 모으면 자원

폐건전지 → 새 건전지
종이팩 → 휴지로 교환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활습관에 달려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폐건지의 경우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함유, 매립할 경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고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폐건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산화은전지, 수은, 망간 등은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건전지를 모아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오면 폐건전지 30개 당 새 건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 준다.

유해물질 수은 함량이 높은 폐형광등도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다량을 배출할 경우 구청 자원순환과에 수거를 문의하면 된다. 우유팩, 음료팩 등 종이팩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1㎏ 당(1㎏ 기준 200㎖는 100개, 500㎖는 55개, 1000㎖ 35개)두루마리 휴지 1롤로 교환해 준다.

구 관계자는 "작은 관심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자원순환과 ☎ 880-4357~8

강현숙 명예기자



인천시 소식

안전신고 포상제 확대 시행

인천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시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3만105건의 신고 중 우수신고자 74명을 선정해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신고자 최우수상에는 안전장치 없이 방치된 펜션공사현장을 신고한 시민이 선정돼 50만 원을 수여했다. 다수신고자 부문에선 도로와 생활시설물 파손 등 총 683건을 신고한 시민에 20만 원을 지급했다.

문의 인천시 사회재난과 ☎ 440-1859

'공공심야약국' 3개소 운영

인천시는 9월1일(일)부터 심야시간 및 휴일에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취약시간대(심야시간 및 휴일 등)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이다.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3개소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약사의 복약 지도, 의약품 판매,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영약국 미추홀구 인하로 301-1(주안동) ☎ 070-8874-7561
성모약국 서구 원창로 174, 102~103호(신현동, 남송프라자) ☎ 583-6083
동암프라자약국 부평구 열우물로 50(십정동) ☎ 421-8642

“건강한 식생활 함께해요”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건강·환경 중시 식문화 정착 ‘한몫’



선선한 바람이 부는 햇빛 좋은 날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주안로 117-16)를 찾았다. 국민건강과 식품영양, 전통음식 확산, 농업·농촌 지원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9년 식생활교육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부모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교육을 목적으로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결성됐다.

문하연 명예기자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에도 산하단체가 문을 열었다.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는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교육계획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주된 활동은 마을장독대 운영, 중식업 면장양성 프로젝트부터 아빠와 함께 쿠킹클래스, 우리가족 행복한 밥상, 1세대 3세대가 함께하는 새콤달콤 요리 교실,



자원순환 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미니박람회 등이 있다.

식생활 전문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동화 구연과 미각교육 등을 통해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경로당을 찾아가 고혈압·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단 교육과 실습을 한다.

미추홀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요리실습 강좌도 진행한다. 이곳은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리대와 주방기구를 갖추고 있어 대관이 가능하다. ‘내 인생의 소울 푸드’는 인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생애 전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장년 남자를 대상으로 한 요리 강좌다.

“요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올바른 농산물 소비촉진과 식습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 요리라는 기술을 습득,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백진주 담당자의 설명이다.

또한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음식의 재발견,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GMO 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과 자투리 채소를 이용한 맛간장 만들기,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나눔 장터와 각종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장실습 및 교육도 진행한다.

10월에도 맛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저염요리를 배워보는 ‘쉽고 즐거운 식이요법, 맛있저염’과 제철 과일과 야채로 밥상을 꾸미는 ‘미추홀 밥상 미식회’가 예정돼 있다.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문의 421-4234
http://greentable.or.kr/incheon/PageLink.do

보건소 소식

미추홀구보건소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원 인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경우
증 상 발열, 오한, 두통, 오심, 구토 등
예 방 -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모자 착용
- 풀밭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눕거나 용변 보지 않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야외활동 후 옷 세탁 및 목욕
- 야외활동 2주 이내에 위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문 의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 880-533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장소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 의 모자보건실 880-5455~7, 5481

“해피해피”뇌졸중 운동교실 운영

사업기간 10월 1일(화), 8일(화) (15:00~16:00)
17일(목), 24일(목), 30일(목) (14:00~15:00)
장 소 보건소 3층 대회의실
사업내용 일상생활 도구를 이용한 그룹 재활운동 및 자가운동 교육 등 관절 가동범위 향상 및 근력강화 운동 등
등록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비용 무료)
문 의 물리치료실 880-5439, 547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 상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신청시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내 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임산부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준비서류 신청서,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 의 모자보건실 880-5455~7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 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제분유지원 신청 시, 산모의 질병(해당자에 한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필요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문 의 모자보건실 880-5483

숭의보건지소

여성건강강좌 대상자 모집

일 시 10월15일~11월12일
매주 화요일, 10:00~12:00(주 5회)
접 수 9월2일(월)부터 전화 및 방문(선착순)
대 상 중·노년 여성 30명(5층 보건교육실)
문 의 건강증진실 880-5372, 5385

재활 건강강좌 운영

일 시 10월11일(금) / 14:00~15:00
접수·장소 9월~마감시(선착순 전화 및 방문) / 5층 보건교육실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
문 의 재활치료실 880-5393~5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모집

일 시 10월23일(수) / 10:30~11:30
접수·장소 9월2일(월)부터(선착순 전화 및 방문) / 5층 보건교육실
대 상 임신부, 출산부 및 영아 이유식에 관심 있는 주민
문 의 건강증진실 880-5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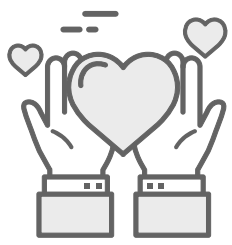
행복한 출산 요가교실 운영(제4기)

일 시 9월2일(월)~10월30일(수)
매주 월·수요일 10:40~11:40
접수·장소 선착순 전화 및 방문(비용 무료) / 2층 다목적실
대 상 미추홀구 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20명 이내
문 의 모자보건실 880-5381~2

MICHUHOL
알·짜·정·보

'미추홀 알짜 정보'는 미추홀 구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추려 전달해 드립니다.

복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바우처 신청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 11세~18세 (2001년~2008년 출생자)
지원내용 일회용 생리대 등 구매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신청기간 1월2일(수) ~ 12월15일(일) 신청한 달부터 지원
바우처사용
- 12월31일(화) 미사용분 자동 소멸, 반드시 기간 내 사용

지원금액 및 바우처 잔액 문의
- 바우처사업 콜센터 7566-3232(내선4번)

문 의 평생학습과 교육지원팀 880-738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숭의점 이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란?
인천 시민 및 인천 소재 직장인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연회비 1만 원) 대여하는 장난감 대여점
일 시 11월26일(화)
이전주소 숙골로43번길 14-21(도화2·3동)
안내사항
- 10월31일(목), 18:30 장난감 대여 종료
- 11월14일(목), 18:30 장난감 반납 종료

문 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숭의점 888-0252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수급자 지원 확대

내 용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 미 적용대상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의 경우

문 의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자격
-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 등급 3급 외 다른 부장애 등급이 있는 자
※ 65세 미만이면서 2007년4월1일 이후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를 받아야 함

- 선정기준액 : 단독(122만 원)과 부부(195.2만 원)
- 이전에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에도 재신청 가능(현재 일 시점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선정 여부 판단)

지원내용 (최대 38만 원~40만 원 차등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64세 : 기초급여(30만 원)+부가급여(8만 원), 65세 이상 : 부가급여(38만 원)
- 보장시설(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 기초급여(30만 원) 65세 이상 : 부가급여(7만 원 - 시설수급 특례자)
- 차상위계층 18~64세 : 기초급여(25만3,750원)+부가급여(7만 원), 65세 이상:부가(7만 원)
- 소득하위 70% 18~64세 : 기초급여(25만3,750원)+부가급여(2만 원), 65세 이상 : 부가(4만 원)

신청기한 연중 수시
문 의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880-735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9년1월1일(화) 이후 출산한 자
- 2019년1월1일(화)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문 의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880-7358

교육



주민 무료 컴퓨터교육

교육대상 관내 주민
교육장소 미추홀구청 본관 4층 정보화교육장
준 비 물 신분증, 간단한 필기도구
비 용 무료
신청기간 10월7일(월) ~ 10일(목)
접수방법 정원 초과 시 추첨
- 인터넷 신청: 미추홀구청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 분야별정보 〉 교육 〉 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 신청하러가기'
- 전화신청 : 미디어홍보실 880-4080

교육과목 및 내용

구분	교육기간	정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웹포토샵을 이용한 사진편집 2기	10월 14일(월) ~ 25(금) / 10일간	24명	10:00 ~ 12:00	웹포토샵을 이용 사진 편집하기
원하는 정보 검색하고 한글작성 향상하기 3기			13:00 ~15:00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한글문서 작성 연습하기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 과목 연간 2회까지 수강 가능
- 대기자는 교육 시작 일부터 결원 발생 시 순서대로 충원
- 교육 첫날 불참할 경우 교육신청 취소
- 교육 첫날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미지참할 경우 교육신청 취소
- 수업신청 후 무단결강 이력이 있는 경우 수강 불가

문 의 미디어홍보실 880-4080

문학산에서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

일 시 9월28일(토) ~ 10월20일(일) 매주 토·일요일 10:00~12:00
장 소 문학산 역사관(문학산 정상부)
대 상 관람객 누구나 ※ 매회 50명 선착순 현장마감
내 용 빙글빙글 룰렛돌리기, 전설·가훈·소원 등 캘리그라피로 쓰는 나의 이야기
문 의 문화예술과 880-7958

행정



권역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장소	일시	시간	담당 센터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3:30 ~16:30	미추홀구청 일자리지원센터 (☎880-7939)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도화1동 일자리센터 (☎728-6296)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학익1동 일자리센터 (☎728-6257)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주안2동 일자리센터 (☎728-6357)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안8동 일자리센터 (☎728-6476)

제3회 중장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 시 10월11일(금) 14:00 ~ 16:00
장 소 미추홀구청 중회의실
업 체 5~7개 업체
대 상 관내 중장년 구직자 100여 명
내 용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맞춤형 현장면접의 장
문 의 일자리정책과 ☎880-4387, 7415, 7939

제3회 채용박람회 개최

일 시 11월11일(월) 14:00 ~ 16:00
장 소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업 체 직접참여업체 : 25개 업체
간접참여업체 : 25개 업체
대 상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300여 명
내 용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대규모 현장면접의 장
문 의 일자리정책과 ☎880-4387, 7415, 7939

제10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개최

일 시 10월3일(목) 10:00
장 소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등 구청사 일원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이전 출생자)
응모분야 한국화, 서양화, 서예(한글·한문), 문인화
시상내역 대상 1점(상금 30만 원), 최우수상 5점(상금 각 10만 원), 우수상 5점(상금 각 5만 원), 특선 20점(상금 각 2만 원), 특별상 50만 원 상당의 의료진료권
심사발표 10월10일(목), 인천미추홀구청 홈페이지
작품전시 11월15일(금) ~ 2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시 상 식 11월15일(금) 15:00 예정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주최·주관 미추홀구청,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조직위원회
문 의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조직위원회
☎010-6264-6454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기간 1월2일(수) ~ 10월31일(목)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주택가 주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개인, 단체, 기관 등
지원방법 신청인이 주차시설 공사 완료 후 설치비의 100% 지원
※ 주차시설 공사 전, 반드시 미추홀구청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 조건		5면 이상 개방
지원 금액	최초 개방	2천만 원 한도 (산식 : 500만 원 + 개방 면수 × 25만 원)
	재개방	최대 500만 원
개방 기간		2년

문 의 교통정책과 ☎880-4808

제5회 미추홀 에코나눔장터

일 시 10월5일(토) 13:00 ~ 15:00
장 소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주차장, 생태놀이터 (매소홀로 290번길 7)
내 용 도서 특별전, 장난감·인형, 의류·신발·그릇 등 생활용품판매, 장난감·자전거·우산 수리, 폐건전지와 우유팩 교환,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업사이클 체험, 미추홀구 관내 중·고교 교복 무료나눔, 먹거리장터 등
준 비 물 신분증, 돗자리(필수 지참), 장바구니, 텀블러 등
※ 나눔장터 판매수익금의 10%는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 일회용 비닐봉투, 쓰레기 없는 장터를 위해 장바구니, 개인컵 준비
문 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217-293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반 보일러를 인증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대당 20만 원 지원 (1가구)
대 상 일반 보일러를 인증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미추홀구 구민
사업기간 재원 소진 시까지(조기소진 예상)
신청방법 보일러 교체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구비서류 포함)를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 의 환경보전과 ☎880-4594

숭의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의견조사

주민의견조사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추진 [찬성/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
조사대상 숭의5주택재개발정비구역(장천로48번길 인근) 내 토지등소유자
조사기간 8월26일(월)~10월19일(토) 55일간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방문제출
  8월26일(월)~10월14일(월) 50일간, 9시~18시
- 현장투표 : 10월18일(금)~19일(토) 2일간
  미추홀구청 상설감사장, 9시~18시

참 여 율
- 9월3일(화) 기준 참여율 7.9%(20명 참여/253명 중)
- 10월19일(토) 기준 참여율 75%미만인 경우, 조사기간 15일 연장(~ 11월11일(월))

문 의 도시정비과 주택정비1팀 ☎880-4571~2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며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 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니, 토지확보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장기화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주택관리과 ☎880-446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훈련기간 10월28일(월)~11월1일(금) 1주간
내 용 재난 및 사고 위기관리매뉴얼 검증을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훈련주제 지진으로 인한 인천구치소 화재발생 수습훈련
훈련일정
- 10월29일(화) 10:00~12:00
  인천구치소 화재발생 수습훈련 / 구청 중회의실
- 10월30일(수) 14:00~14:20
  지진대피 훈련(전국일제 훈련) / 관내 전역
- 11월1일(금) 14:30~16:00 인천구치소 화재진압 현장 훈련(소소심체험 병행) / 인천구치소주차장

문 의 안전총괄과 ☎880-4421

버스노선 불편사항 민원 접수

접수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불편 사항
접수기간 10월~11월
신청방법
- 전화 접수 ☎880-7371
- 이메일 접수 antiquetv@korea.kr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 의 자동차관리과 ☎880-7371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대 상 무단투기를 신고한 미추홀구 주민
지급요건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
지 급 액 과태료 부과액의 50% 지급(담배꽁초 등은 과태료 부과액의 10%)
지급방법 신고인 계좌로 지급
금액제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건수제한 동일 신고인 연간 30건 이하로 제한
※ 무단투기 신고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고, 깨끗한 미추홀구 조성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의원 칼럼

우리가 실천해야 우리 마을이 변한다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작년 7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는 구정 목표를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고 정했다. 또한 골목골목까지 깨끗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이 깨끗하게 변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1년이었다. 이어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실시됐다.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의 수집이 늘어나고 수집된 쓰레기의 재활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레기 더미를 발견할 수 있다. 주민 중의 일부는 주차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말한다.

구청 자원순환과의 2018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수거된 생활쓰레기 양이 약 8만5천여 톤(무단투기쓰레기 2천600톤 포함)이 넘고, 수거처리비는 대행료와 소각장 및 매립지 반입료를 합쳐 약 114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같은 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약 1만4천여 매, 금액으로는 약 63억 원 정도다. 쓰레기수거처리 자립도는 약 55%다. 나머지 45%인 51억 원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구 예산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을 보면 필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 되어있다. 우리 구의 경우 43만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골목으로 연결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원룸과 같은 가구밀집형 주택이 전체 60%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철저한 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의 관리 주체는 없고, 각자 개인의 주민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주택가 곳곳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날아간 지 오래다.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는 이웃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각한 주차 문제와 더불어 마을에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지 얼마 안 되는 종량제 봉투 값에 이웃을 잃고,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간 쓰레기 발생량 중 생활쓰레기가 하루 약 1만6천 톤이 발생한다. 1인당 하루 1.01㎏이다. 이는 연간 약 369㎏ 배출되는 양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플라스틱 1인당 생산량 및 원료 소비량이 1위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필자는 충분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법 중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손쉽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무궁무진하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의 편함을 버리고 관심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쓰레기를 충분히 줄 일수 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분리배출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4가지 기본 원칙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지켜야 하며, 이물질로 오염된 비닐이나 스티로폼 용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포장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상표 등을 모두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일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더불어 자원의 순환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지만 4가지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와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를 가장한 일반쓰레기가 우리 마을 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수거업체,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또한 어느 한 곳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면 우리 마을, 더 나아가 우리 지구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필자는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우리의 노력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한 마을로 변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제244회 임시회 개회



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는 9월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부터 9월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 기간 현장방문



미추홀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4일, 5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근)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향초)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방문에서는 미추홀구 보훈회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점검했다.

김용운의 미추愛세이 ⑨

바람이 전하는 말



나이스미추 편집위원

헐, 셌다. 아니 무시무시했다. 역대 5위급 강풍의 위력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한 지난 7일 집 근처 대로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강수량이 많진 않았지만 초속 50m의 태풍은 도시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

가로수들은 일제히 몸을 휘청거리며 필사적으로 땅을 움켜잡고 링링에 맞섰다. 위태롭고 처절해 보였다. 잘려나간 잔가지들은 비와 함께 도로와 허공으로 쓸려 다녔는데, '암흑의 대낮'에 저공비행하며 공습하는 먹구름군단은 모든 것을 삼킬 기세였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가로수는 끝내 맥없이 꺾였고, 찢겨진 현수막 천들이 도심을 빠른 속도로 흐느적거리며 떠돌았다. 유령처럼.

링링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음산하고 섬찟한 소리를 내며 휘저었다. 순간 나는 바람도 살아있구나, 어쩌면 얼굴이 있는데 너무 빨라 내가 못 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소름이 돋았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으로 가는 동안 우산은 제 역할을 못했다. 뒤집히기 직전 접어버렸다. 어차피 옷과 머리는 젖었으니 우산이라도 살리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링링이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할 무렵 동네 여기저기서 시설 복구와 청소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화단의 나무 한 그루는 아예 뿌리째 뽑혀 드러누웠다. 가끔 산책하며 지나다니던 길목에 있던 나무였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번 태풍의 이름인 '링링'은 소녀를 귀엽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란다. 귀여운 소녀의 얼굴로 와서 도시를 휘저으며 끔찍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또 소름 끼쳤다.

며칠 전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섬나라 바하마를 휩쓸었다.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란다. 링링보다 훨씬 센 위력과 질긴 생명력으로 며칠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까지 위협한 슈퍼태풍이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피곤한 몸을 누였을 집과 그들의



삶을 순식간에 박살냈다.

가을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태풍은 열받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다. 지역사회나 각종 단체, 조직에 부는 '바람(여론)'도 크건 작건 다양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는 이런 '바람이 전하는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바람이기 때문이다. 바람을 열받게 하지 마라. 태풍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선의 온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심혜진 명예기자

최근 지인에게 독특한 경험담을 들었다. 얼마 전 그는 한 동물권 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질'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축장으로 들어가려는 트럭을 막아서고 운전기사에게 잠시만 동물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소와 돼지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도살되기 직전 소와 돼지는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몹시 목이 마르고 배고픈 상태라 한다. 곧 고기가 될 동물에게 음식을 주는 건 인력 낭비,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똥오줌을 싸 번거로운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라 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채식을 하고 있는 그는 적극적 실천의 방법으로 이 체험에 나섰다.

그냥 지나가는 대부분의 트럭 사이에서 몇몇 기사들이 이들의 요구에 차를 멈췄다. 덕분에 지인은 잠시나마 소와 돼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충혈된 눈으로 입에서 거품을 내뱉는 소와 눈가가 짓무르고 피부가 괴사한 돼지, 젖에서 피가 흐르는 젖소… 잠시 눈이 마주친 소의 눈망울이 자꾸 생각나 이후 며칠 동안 울었다고 했다. 이 얘길 전하는 동안에도 그의 목소리는 내내 떨렸다.

웬일일까. 그의 이야길 들으며 나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 거북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딴청을 부렸다. 이런 내 마음을 알 리 없는 그는 넋이 나간 듯 공허한 표정으로 급기야 눈물까지 찍어댔다. 겨우 만남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엔 닭곰탕을 먹었다. 오전에 한 솥 가득 끓여놓은 것이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뼈에 붙은 살을 야무지게 발라냈다.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려는 순간, 난데없이 소의 새카만 눈동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닭곰탕 먹는데 소가 웬 말!'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따라 퍽퍽한 살코기가 목구멍이 콱 막혀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입맛이 뚝 떨어졌다.

한때 나도 채식을 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무렵, 축산 현실을 다룬 책을 본 직후부터였다. 먹을 게 많은 데 굳이 멀쩡히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내 식욕을 채우기가 몹시 미안했다. 아주 큰 결단이나 각오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단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든 이상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래도 간식과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2년을 버텼다. 채식한다는 자부심과 가벼워진 몸의 느낌이 내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채식의 삶을 무너트린 건 야근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이었다. 잠과 쉼이 부족하고 피로에 찌든 일상에서, 나는 채소를 썰고 도시락 설거지할 시간을 가장 먼저 잘라냈다. 달걀을, 멸치를, 햄버거를 점차 먹게 됐다. 주위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다. 채식이 무너진 자리엔 생명에 대한 죄책감도 자취를 감췄다. 15년이 지나는 사이 나는 달에 한 번은 치킨을 먹어야 하는, 치킨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15년은 닭의 수명이기도 했다.

지인의 이야기에서 나는 그때의 실패를 맞닥뜨렸다. 나는 채식 실패자, 다시 시작해 봐야 어차피 또 실패할 사람.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불편함의 실체는 실패에 대한 자책이었다.

씁쓸한 마음을 달래려 밤 산책을 나섰다. 인기척에 놀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차 밑에서 몸을 움츠리며 눈빛을 번득였다. 아, 나란 존재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무감각한 포식자로, 가해자로 살 텐가. 그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결심이 내겐 왜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 동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 명대로 살기 어려운 만큼이나.



1 (화) / 8 (화)

시네마차이나 인천 10월 상영작
가다 메이린《嘎达梅林》

시간 14:00
장소 영화공간 주안
비용 무료
등급 12세 관람가
문의 영화공간 주안 427-6777

15 (화) / 22 (화)

시네마차이나 인천 10월 상영작
유보 이야기《柳堡的故事》



시간 14:00
장소 영화공간 주안
비용 무료
등급 전체관람가
문의 영화공간 주안 427-6777



16 (수)

인천향교 달빛공감음악회

시간 19:30~20:30
장소 인천향교
대상 누구나(무료)
공연팀 온음챔버앙상블
문의 문화예술과 880-7969
※ 음악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통문화체험부스 운영

17 (목) ~ 19 (토)

학산어린이극 10월 공연
뮤지컬 〈욕쟁이 할머니와 암탉〉



시간 10:00, 11:00(목·금), 16:00(토)
※ 평일 : 단체관객 / 주말 : 일반관객
장소 학산소극장
비용 1만 원
(단체관람 및 미추홀구 주민 50% 할인)
대상 4세 이상
문의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2019 10

화	01		
수	02	18	금
목 (개천절)	03	19	토
금	04	20	일
토	05	21	월
일	06	22	화
월	07	23	수
화	08	24	목
수 (한글날)	09	25	금
목	10	26	토
금	11	27	일
토	12	28	월
일	13	29	화
월	14	30	수
화	15	31	목
수	16		
목	17		

19 (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악·가·무·서·화[갬블러크루]



시간 17:00
장소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대상 8세 이상
예매 엔티켓(www.enticket.com)
비용 1만 원
※ 사전예매(회원) 5천 원, 현장예매(회원) 7천 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25 (금) ~ 26 (토)

시민에게 열린 무대 〈우리도 예술가〉

시간 19:00(금), 16:00(토)
장소 학산소극장
대상 누구나
비용 무료
문의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30 (수)

제8회 영화감독 봉만대와 함께하는 BookCine



시간 14:00
장소 영화공간 주안
비용 5천 원
내용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문의 영화공간 주안 427-6777

학산가족음악회 〈응답하라 8090!〉



시간 19:00
장소 학산소극장
대상 7세 이상
비용 무료
문의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우 체 통

홀가분한 어깨로 가자

참 삭막한 시절에, 짠물 부서지는
파도 끄트머리에서 울던 소라게는 저를 감출
소라 껍데기를 알아보았다
나는 너의 등껍질을 너는 나의 등껍질을 지고
파편 앞에 은둔 게 두 마리가 호기로운 시절이었구나
청춘의 막바지를 거론하며 침통하던
겨울 즈음이었으니 어느덧 열 번의 해를
부둥켜안았나 보다
세월은 무정하여 정으로 자기를 붙드는 사람의
사정을 봐 주지 않아, 고뇌도 주름도
점점 깊이 들어오는 조각칼에 무던히 다친다

엊그제, 네 책을 받고 책장에 제 자리를 찾아 주다가
바구니를 끄집어내려 묵은 기억을 들추었다
차곡히 쌓인 글자들과
책장을 거의 점령할 기세인 책들
너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 숨 쉬는 듯하여 먼지마저
애틋함으로 겨우 털어낸다 하면 한 번 웃겠니

유행하는 색칠공부를 해봤다던 너는
무지개를 움켜쥔 손으로 온통 꽃이었으리라

"길을 잃고 헤매도 무서워하지 않을게
네가 나를 찾아올 테니까"

그림 뒷면의 글귀가 내 마음만 같아서 속이 더웠다
네 속도 그러했겠다 생각하니 등껍질이 시렸다

고마운 사람으로 있어 주어 고맙다
서로가 먼저인 이들로 와 주어 고맙다
벗이라는 말이 눈물겨울 수 있어 고맙다

나의 계절이 봄 겨울 겨울 겨울이었어도
내 발밑에 군불 때어줄 사람 있었으니 좋았다

기억을 반나절이나 퍼먹었더니 배가 벌떡 일어났다

올겨울은 진한 빨강이었으면 좋겠다
저 붉은 포장지들처럼 대 놓고 찬란이었으면 좋겠다

장연희(관교동)

〈나이스미추 독자 투고 안내〉 독자 여러분의 글과 미담을 기다립니다.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보내주신 내용은 나이스미추 우체통에 소개됩니다. 독자투고 담당자 메일로(redsk77@korea.kr / 이름, 전화번호 기재, 소정의 원고료 지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